

# “토요일엔 도심 숲으로 ‘아트피크닉’ 가요”

중외공원·푸른길공원 등에서  
8일 개막...4월~11월 초 열려  
계절별 프로그램 등 다채

지난해 중외공원 일대를 흥겹게 만들었던 ‘아트피크닉’이 8일부터 더욱 풍성해진 모습으로 찾아온다.

광주시가 주최하는 ‘아트피크닉’은 문화기획협동조합 ‘쉬 좋은피알 착한기업’이 주관사를 새롭게 맡았다. 격주로 열렸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예산 4억4000만 원을 투입, 4월부터 11월 초까지 매주 토요일(오후 1~6시) 열리며 개최 횟수가 늘었다.

장소도 확장한다. 5월27일에는 남구 푸른길공원에서 열리고 각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 서구, 광산구도 추가할 예정이다.

올해 행사는 ‘도심 숲 이야기’를 주제로, 계절별 상시체험 프로그램, 문화예술기관 협업프로그램, 봄철 특별기획으로 나뉜다.

상시체험은 다양한 신규 문화예술체험이 기획된 가운데 부모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한 점이 눈에 띈다.

아동돌봄 프로그램 ‘아빠, 엄마 쉬다 오세요~’가 대표적이다. 공로 채운 대형 에어볼장에서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동안 부모들은 다른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단 가족당 1시간으로 제한한다.

아동돌봄 프로그램과 연계한 ‘아빠, 엄마의 아트놀이’도 마련했다. 부모들이 스트레스를 풀고 쉬 수 있도록 해먹과 책을 준비했다. 내일 아트를 비롯해 화장법 등을 교육하는 뷰티스쿨도 진행한다.

‘아트스쿨’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음악·미술·공예 분야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아트 직업체험’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예술인들의 삶을 소개한다. 만화가, 조각가, 샌드아티스트, 사진작가, 마술사 등이 나선다. ‘감성놀이터’에서는 상상카드 만들기, 샌드아트·피아노·종이상자 놀



‘아트피크닉’이 8일부터 매주 토요일 중외공원·남구 푸른길공원 등에서 펼쳐진다. 지난해 중외공원 잔디밭에서 열린 행사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이터를 즐길 수 있다. 또 수공예품을 구매하고 배울 수 있는 ‘아트공방촌·마켓’(체험비 1000~3000원), 가족사진을 촬영해주는 ‘포토존’ 등을 조성한다.

특별 프로그램은 계절마다 다르게 구성한다.

봄에는 마음을 치유하는 행사들이 주를 이룬다. ‘마음으로 그리는 물감’(4~5월 격주 토요일)에서는 미술·음악 심리치료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받고, ‘노란리본만들기’(8·16일)에서는 리본을 만들어 세월

호를 추모한다. 5월 셋째주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는 ‘가족 사랑 사생대회’를 연다. 여름에는 텐트형 모기장에서 가족들이 함께 영화를 보는 ‘달빛아트영화관’을 추진한다.

문화예술기관 협업프로그램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디자인센터, 광주문화재단,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이 참여해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은 제기차기, 투호, 활쏘기 등을 가장 잘하는 어린이를 뽑는 ‘어린이 놀이대장’을, 광주시립미술관은

원예체험을 시민들과 함께한다. 행사시간 빼어로, 마술, 키타리아저씨 등도 공연하며 볼거리가 풍성하다.

8일 개막식은 세월호 인양과 관련, 차분한 분위기로 열린다. 집에서 안보는 책을 가져가거나 프로그램을 마치고 도장을 찍는 스탬프 투어를 완성하면 체험할인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 오후 3시~4시30분에는 버블아트 등 이색적인 무대가 펼쳐진다. 문의 062-945-567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봄날, 사랑을 노래하다

광주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나영수와 함께하는 명곡’  
10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봄날, 사랑을 노래하다.’ 국립합창단 초대 단장겸 상임지휘자를 지낸 나영수는 한국 합창계의 대부로 불린다. 나씨가 이번에는 광주시립합창단과 호흡을 맞춰 아름다운 노래를 선사한다.

광주시립합창단 제167회 정기연주회 ‘나영수와 함께하는 사랑의 명곡’이 오는 10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에서는 브람스의 대표곡들을 만날 수 있다. 그가 짝사랑으로 가슴앓이를 하던 시기 발표한 ‘사랑의 노래’ 작품 52 중 ‘말해주고 아가씨여’, ‘봄에 타는 저녁노을’을 비롯해



나영수

‘새로운 사랑의 노래’ 작품 65, ‘집시의 노래’ 작품 103번 등이다. 또 오페레타 ‘황태자의 첫사랑’ 중 ‘세레나데’, 뮤지컬 ‘남태평양’ 중 ‘여자보

다 귀한 것은 없네’ 등 사랑을 주제로 다양한 장르의 합창곡이 연주된다. 그 밖에 김준범의 ‘제비꽃’과 러시아 민요 ‘러시아 피크닉’, 현제명 ‘나뭇가게 처녀’와 민요 ‘아리랑’, ‘님이 오시는지’, ‘동무생각’ 등도 만날 수 있다.

티켓 가격 전석 1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062-415-520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문학·철학·영화...광주시민인문학 4월 새 강좌

전남대 정문 앞 카페 ‘노블’

실천인문학을 지향하는 광주시민인문학이 4월 들어 새 강좌를 개설한다. 오는 30일까지 4주에 걸쳐 전남대 정문 앞 카페 ‘노블’에서 개최되는 42기 강좌는 문학, 철학, 영화, 클래식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시민들 참여 위주로 진행된다.

정규강좌는 월·수요일(오후 7시 30분) 강좌와 월·금요일(오후 2시) 강좌로 나뉘어 진행된다. 월요일에는 인천 음악대학의 ‘일상에 클래식 선율을 다양한 영상음악 및 악기순례’(오후 2시)와 김청우 박사의 ‘시 창작, 이론에서 실기까지’(오후 7시 30분)가 열린다.

수요일(오후 7시 30분)에는 철학스터니 시간으로 ‘물의 철학, 메트로 폰티 ‘지각의 현상학’을 토대로 강독과 토론이 진행된다. 금요일(오후 2시·롯데문화센터 인문학)에는 인문사회융합 시간으로 명혜영 교수가 ‘페미니즘적 상상력-저도 중년은 처음입니다’를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토요일(오후 2시)에는 SEMI 강좌는 무비토크 시간으로 ‘러시아 영화 감독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작품전’이 진행된다.

토요일과 일요일(오전 9시) 개최되는 일상자급자족프로젝트 시간에는 각각 ‘신공장의 여행 수첩-수다(數多)가 필요한 당신을 손님으로 초대합니다’와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관람이 예정돼 있다.

수강료 학생 1만원, 조합원 2만원, 일반회원 3만원. ‘인문택시’와 ‘전주국제영화제’, ‘롯데문화센터 인문학’은 참가비 별도. ‘네이버 카페 ‘광주시민인문학’ 참조. 문의 010-4624-1201.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헌 책 기증하고 봄꽃 받아보세요

아름다운가게 헌책방 광주 용봉점 ‘책나눔, 나무꺼안기’ 캠페인

아름다운가게 헌책방 광주 용봉점이 식목일을 맞아 5일부터 ‘책나눔, 나무꺼안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책장 속에만 묵혀두기 아까운 책이나, 나에게도 더 이상 필요없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쓸모가 있을 책들을 기증하면 예쁜 봄꽃 식물로 바꾸어 주는 행사다. 한때 나무였고, 숲이었던 책의 수명을 더욱 연장시키고, 함께 조록숙을 가꾸자는 취지로 진행하고 있다.

헌책방은 2009년 개점 후 시민들의 도서기증과 자원봉사 8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민들의 생활 가까이에서 기부문화와 재사용운동을 이끌어 내는 문화사랑방 역할

도 하고 있다. 또 한달에 한번 ‘책방음악회’도 열고 있다. 지금까지 판매된 헌책은 38만 4781권에 달하며, 이를 나무로 환산하면 3년생 나무 34만 5302 그루를 살리는 셈이 된다. 수익금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쓰인다.

책방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일요일 휴무)까지 문을 열며 식물 화분 소진시까지 행사를 진행한다.

기증 가능한 물품은 도서(단행본) 및 음반(CD, DVD, LP), 1년 이내 발행된 미사용 수험서 및 참고서, 2008년 이후 출판된 전집 및 백과사전, 여학사전, 영문원서 등이다. 유훈 시기가 지난 전공서적, 풀이·채점한 수험서, 교



과서, 2007년 이전 출판된 전집 및 백과사전은 받지 않는다. 문의 062-514-897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정봉주 前 국회의원

전여옥 작가

남희석 방송인

진중권 교수

안형환 前 국회의원

# 외부자들

OUTSIDER

매주 화요일 밤 11시

CHANNEL